

해남군 농어업소득 1조·관광객 300만명 유치

‘123 시책’ 청사진 제시
합계출산을 2.42명 목표
수산업 소득 5000억 달성

해남군이 올해 농·어업소득 1조원, 출산을 2.42명, 관광객 300만명 달성을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농어업소득, 출산율, 관광객 달성의 앞선 숫자만 따지면 이른바 ‘123 시책’이다.

◇잘 사는 농·어촌으로=해남군은 지난 2015년부터 농·어업 소득 1조원을 돌파했다. 해남군은 올해도 농·어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29%를 투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친환경인증면적(4811ha)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기인증으로 전환을 추진,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밤호박과 부추, 무화과 등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해남군 주도형 식품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규모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물김을 비롯, 마른김, 자반 등으로 율



해남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수영 문화마을. 관광객들이 마을에 그려진 벽화를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 수산업 소득 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이낳고 싶은 곳으로=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해남의 합계출산율은 2.42명(2016년 기준)으

로 전국 1위다. 2015년에도 2.46명으로 1위, 2014년에도 2.43명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5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우선, 올해 해남병원 내 분만산부인과가 30일 개원하면서 지난 2015년 개원한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임신·출산·산후조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는 한편, 출산 중심의 시각을 고령화와 인구 문제 등으로 확대,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300만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전 국민이 꼭 한 번 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땅끝해남의 위상 되살려 중장기 관광정책도 추진한다.

해남 우수영을 비롯한 해남 일대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을 활용, 300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를 가꿔나간다는 게 해남군 전략이다.

해남군은 우수영 관광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우수영 문화마을 ▲올돌목 회오리바다 체험장 ▲해남 인문학하우스 ▲임하도 상관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개관하는 땅끝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옥천면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대설 어촌복합 체험공원 조성 등도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나간다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희망찬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균형 추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일출공원 5가지 테마 공간 나눠 개발 히스토리·가든·어드벤처 등...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이 5가지 테마 공간으로 나눠 개발된다.

완도군은 29일 다도해일출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대표 관광자원인 다도해 일출공원(사진)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히스토리 파크 ▲가든 파크 ▲어드벤처 파크 ▲내츄럴 파크 ▲패밀리 파크 등 5가지 테마별로 배치하고 각 공간을 모노레일 열차로 연결하는 형태로 다도해일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히스토리 파크는 완도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망대, 증

강현실 체험관 도입이 검토되고 가든파크에는 토피리우스공원, 음악분수 등 다양한 정원양식을 체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어드벤처 파크는 루지, 터보건, VR체험관 등이 설치되고 내츄럴 파크에는 에코어드벤처, 질라인을 도입한다. 패밀리 파크는 오토캠핑장, 어린이 놀이공원, 배리스토랑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지역활성화사업(사업비 50억원)에 최종 확정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다도해일출공원을 볼거리, 즐길거리, 쉬거리가 있는 세계 최고의 관광코스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재정 어려운데...해남군 전직원 해외연수 추진 논란 직원복지 5개년 계획 29개 과제 논의

해남군이 ‘직원 복지 5개년 종합계획’으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전 직원 해외연수’를 추진키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신바람나게 일할 행복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임에도, 일각에서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감지된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직원 후생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9

개 과제(계속 22개, 신규 7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은 가족친화적이면서 소통·혁신·상생하는 행복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9개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장례식장 20% 할인, 동호회, 대학 교육비, 경조사나 리조트

(9구좌) 이용 지원 뿐 아니라 매년 200명씩 6년간 추진하는 가족사랑여행(가족당 50만원·사업비 5억), 1인당 50만원씩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비 6억), 무주택 공무원 주택자금대출(7억), 전직원 해외연수(25억), 직원 해외배낭연수(5억)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전직원 해외연수는 1인당 500만원

씩 매년 100명에게 5억원을,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일각에서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군 재정형편과 지역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군 매생이 2억원 어치 팔았다

공직자들 3285재기 구입
이마트 매장 1만박스 판매

완도군이 매생이 소비 촉진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매생이 가격 하락(광주일보 1월 17일·24일 12면)과 관련, 매생이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2억원 상당의 매생이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매생이 가격 하락에 따라 ‘공직자 매생이 사주기 운동’을 벌여 매생이 3285재기를 구입했다. 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5재기(재기당 380g) 1만원, 10재기에 2만원하는 매생이를 구입해 어민들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는 매생이 사주기 운동을 진행중이다.

완도군은 또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 147개 전국 매장을 통해 매생이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고 1만박스를 판매했다.

재경완도군향우회 양광용 회장이 150박스,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가 170박스를 구입하는 등 지역민들도 적극 동참했다.

한편, 완도에서는 매생이 생산량이 늘어 산지가격이 전년도(재기당 2500~3000원)의 3분의 1 수준인 1000원~1300원으로 떨어졌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 박현식 부군수와 직원들은 지난 26일 점심으로 매생이 볶음 요리를 먹으며 매생이 소비 촉진 활동을 벌였다. <완도군 제공>

대파 값 고공행진...진도군 조기 출하 독려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늘어 과잉생산 가격 하락 우려

진도군이 대파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겨울 대파를 조기 출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와 지난해 광주 재래시장(양동시장·1월 22일 기준)의 농산물 판매 가격은 대파(1kg)의 경우 올해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올랐다.

하지만 올해 겨울 대파 주산지인 진도, 신안, 영광, 부안 등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 대비 368ha 증가한 3542ha(12만 1000t)로, 자칫 과잉생산과 소비부진 등이 겹칠 경우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따라 겨울 대파 적정가격 조기 출하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홍보물 재배농가 배부, 전광판 활용 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또 3~4년 주기로 반복되는 겨울대파 가격 하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수급조절과 최저 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와함께 대파재배 농가와 지역농협 간 계약재배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대파 채소가격 생산안정제 사업 시행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진도군은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정부 수급조절 품목에 겨울 대파를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올해 8월부터 추가 품목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zpark@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매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익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